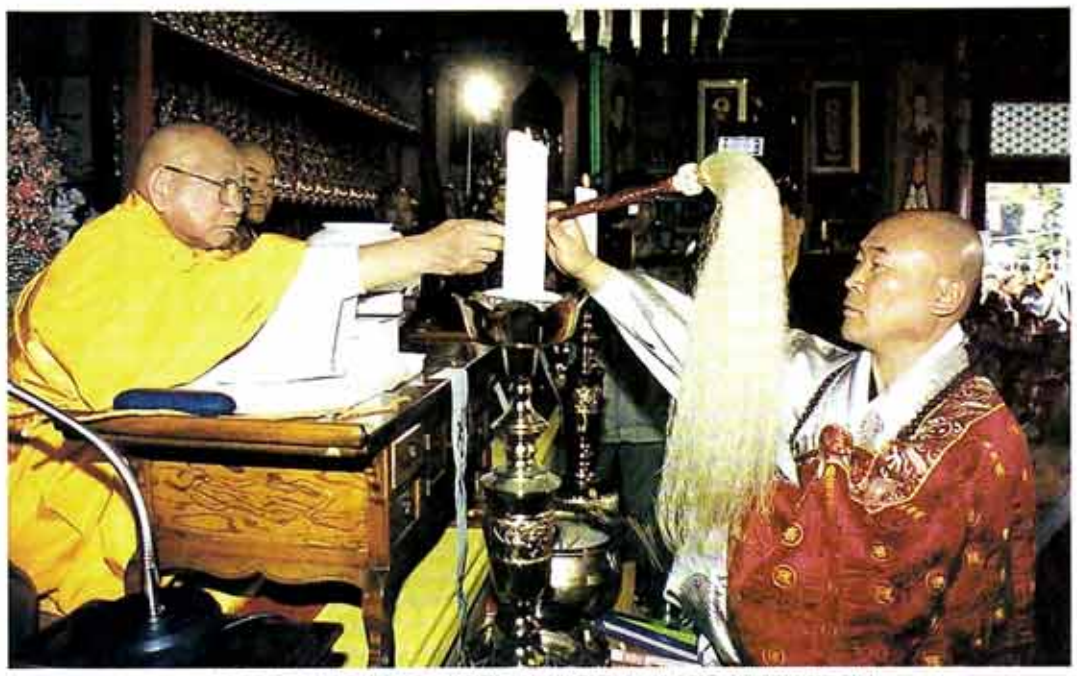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대은 낭오 율사로부터 전승돼 온 금란가사를 수하고 있는 수진 율사.



◇해동율맥 제 10대 율사인 법홍스님(왼쪽)이 불자(拂子)를 제 11대 수진율사에게 전수하고 있다.

해동율맥 전수식 57년만에 재현

청정계율의 소중함 일깨운다

"입으로는 말을 삼가고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며, 몸으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아 삼업의 도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 곧 불도이니라."

부처님 성도 후 12년까지는 계율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게송을 규범으로 삼았다. 그런데 얼마 뒤 수다니가 음행을, 단니가가 도둑질을, 미가란카가 살인을, 바구경변의 비구들이 큰 거짓말을 범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계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불교는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청정하게 할 것을 강조하는데, 몸이 청정한 것은 율이요, 입이 청정한 것은 교이고, 마음이 청정한 것은 선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를 제대로 지키는 불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 10일 전남 담양 용화사에서 해방이후 57년만에 처음 거행된 해동율맥 전수식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만 가는 계율의 소중함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금란가사·의발·경전·염주 등 전달
원로스님들 증명 속 여법하게 진행

태고종은 물론 조계종 원로 스님들의 증명과 축하 속에 여법하게 진행된 이날 율맥 전수식은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스님,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 해인사 무관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이 증명한 율맥 전수식에서 해동율맥 10대 율사인 법홍스님(원효종 종정)은 용화사 주지 수진스님에게 율맥을 전수했다.

태고종의 구족계 및 보살계 수계법회에 이어 진행된 율맥 전수식은 3사(법홍, 혜초, 수진 스님) 7증사(천운, 지허, 운곡, 대운, 남파, 춘곡, 운산 스님)를 옮겨 모시는 이운(移運) 의식으로부터 시작됐다.

삼귀의례, 조인훈 용화사 신도회장의 화환 증정, 수진스님의 봉헌삼배가 끝나자 법홍스님이 9대 율사였던 묵담 대종사로부터 해동율맥의 상징으로 받은 법의(法衣)인 금란가사(金襴袈裟)와 의발(衣鉢, 가사와 바리때)을 비롯 불자(拂子), 경전, 비로자나불인장, 염주 등 묵담 스님의 유품을 수진스님에게 전달했다. 수진스님이 금란가사를 수하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3배를 올리자, 법홍스님은 율맥전수를 증명하는 족자를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수진스님에게 전달했다.

이에 해동율종 제11대 율사가 된 수진스님은 봉대사를 통해 "해동율맥을 전수받게 이끌어주신 제방 율사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정진해 청정계율을 심명봉대하고, 윤리도덕을 회복해 지상불국토를 건설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

"온전한 마음이 계요(全心是戒), 온전한 계가 이 마음이로다(全戒是心). 마음을 여의니 따로 계가 없고(離心無戒), 무계인즉 마음도 없음이로다(離戒無心)."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스님의 격려사,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의 축사에 이어 법홍스님은 전계사를 통해 "30년 전 전주 관음선원에서 묵담 대종사로부터 조촐하게 공식 법회의식없이 율맥을 전수받았으나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큰스님의 유언을 지키지 못해 부끄럽다. 시절인연이 도래해 청정율사인 수진스님에게 계맥을 전하게 되어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해동 전통율맥은 조선후기인 1826년 하동 칠불선원에서 대은 낭오스님이 7일7야의 걸계(乞戒) 기도과정에서 정수리에 부처님의 서광을 받고 '서상수계(瑞像受戒)'하자, 그의 스승인 금담보명 스님이 상좌 대은스님에게 대계(大戒)와 구족계를 전수함으로써 비롯됐다.

대은 낭오스님이 결익 율사, 자장 율사, 진표 율사 등에 의해 선양되어 온 해동율맥이 희미해져 감을 탄식하고 계를 구하는 기도에 들어갔듯이,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계율을 소홀히 하는 현실 역시 별반 다를 바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경전에는 '선이란 부처님 마음이요(禪是佛心), 교란 부처님 말씀이며(敎是佛言), 율이란 부처님 행동(律是佛行)'이라 강조하고 있다. 즉 선과 교와 율은 세 모습을 갖고 있으나 결국 불법으로 돌아가 하나가 되기에, 선과 교와 율을 분별하여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닦아 나가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불도를 깨달으려는 자가 반드시 닦아야 하는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 역시 이를 강조한 말에 다름 아니다.

이번 해동율맥 전수식을 계기로 자발적인 도덕율인 '계'와 승가의 타율적인 규칙인 '율'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청정 수행기풍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 이날 법회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리라. 담양=김재경 기자 kj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증명법사인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등 3사 7증사가 법단에 오른 가운데 거행된 율맥 전수식.

9대 율사 묵담스님

평소 "계율은 삼세제불이 출현하신 큰 법규이고, 사부대중이 성위에 오르는 중요한 문"이라고 강조한 묵담(默潭, 1896~1981)스님은 현대 불교사를 대표하는 청정율사로 손꼽힌다. 1896년 전남 담양에서 출생한 묵담스님은 1906년 장성 백양사에서 순오 선사를 은사로 출가득도 후 백양사 불교 전문강좌를 졸업하고 제방선원에서 70여 안거를 성만했다. 태고종 종정을 다섯차례 역임하고 81년 담양 용화사에서 세수 86세, 법랍 75년으로 입적했다. "수행자에게 있어 계율은 생명이나 다름없다. 계율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청각을 이룰 수 없고 부처도 이룰 수 없다"는 묵담스님의 법어는 현 승가의 수행상을 돌아 보게 한다

10대 율사 법홍스님

이번 율맥전수식을 위해 대전 보문사에서 100일 묵언수행을 마친 법홍스님은 87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시자를 두지 않고 손수 빨래를 하는 등 청정계행을 지키고 있다. 1915년 서울에서 출생한 스님은 23년 안양 삼막사에서 출가, 30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운학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35년 영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36년 건봉사에서 대교과를, 40년 일본 동경 입정대학 종교과를 수료했다. 51년부터 부산 금수사에 주석하고 있으며, 62년 원효종 초대 총무원장, 76년 일본 보림사 주지, 97년부터 원효종 제2대 종정을 맡고있다. 53세의 나이에 일본에서 천태종 전교대사 밀교수행을 120일간 마친 후, 2년후 다시 10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280군데의 절과 불상을 참배한 회봉수행을 마쳐 일본 불교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11대 율사 수진스님

율맥 전수식까지 100일 관음기도를 마친 수진스님은 조선중기 이후의 화담, 금해, 묵담스님으로 이어진 복장(腹藏)의식을 물려받은 이 분야의 권위자다. 예수재, 수륙재 등 불교 전통의식에도 능한 수진스님은 1948년 전북 완주에서 출생했다. 69년 전주 영생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광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묵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 보살계를 수지했다. 73년 해인사 승가대를 졸업하고 77년까지 해인사, 통도사 극락암, 서울 백운암 등에서 참선정진했다. 77년부터 81년까지 묵담스님으로부터 불교 전통의식을 전수받고, 90년부터 담양 용화사 주지, 담양불교사암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 율종(律宗) 약사

백제율종(百濟律宗)의 시조인 겸익(謙益) 율사가 성왕4년(526) 인도에 건너가 상가나사(常伽那寺)에 주석하면서 율을 연구하다가 인도승 배달다삼장(倍達多三藏)과 함께 산스크리트 율문(律文)을 갖고 귀국, 흥륜사에서 국내의 명승 28인과 함께 율문 72권을 번역한 것이 해동 율종의 시작이다. 이를 바탕으로 담욱(曇旭) 혜인(惠仁) 두 스님이 율소(律疏) 36권을 지어 백제불교의 계율이 정립되었다.

뒤이어 자장(慈藏) 율사가 635년 당나라에 들어가 종남산 운제사의 도선(道詵) 율사에게서 율을 수학하고 643년 귀국 후 대국통(大國統)으로서 통도사를 창건하고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설립, 남산종(南山宗)을 전립(傳立)했다.

그뒤 신라 경덕왕(742~764) 때 진표(眞表) 율사가 금산사에서 계법(戒法)과 점찰법(占察法)을 수행하고 속리산 법주사, 팔공산 동화사에서 법상종(法相宗)의 종지를 크게 선양했다.

조선시대에는 추사 김정희가 지은 '백파긍선 비명(白坡亘璇 碑銘)'에 "해동 칠불암에서 7일7야 '계를 구하는(乞戒)' 기도에 임할 때 이마에 상스러운 빛이 내리고 저절로 향에 불이 붙어 '서상수계(瑞像受戒)'한 것이 오늘날 전래된 해동율맥의 연원으로 볼 수 있다.

백제 겸익율사서 비롯
대은낭오의 계맥 이어져

동에 율사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엄종주인 백파 대율사의 대기대용은 율사로서 마땅하다 할 것이다"고 했듯이 백파(1767~1852) 율사가 드러날 뿐 거의 명맥이 끊겼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은낭오(大隱朗旿, 1780~1841) 율사가 스승 금담보명(金潭普明, 1765~1848) 장로와 함께 하동 칠불암에서 7일7야 '계를 구하는(乞戒)' 기도에 임할 때 이마에 상스러운 빛이 내리고 저절로 향에 불이 붙어 '서상수계(瑞像受戒)'한 것이 오늘날 전래된 해동율맥의 연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대은낭오의 계맥은 스승인 금담보명에게 전수되고 초의의순(草衣意詢, 1786~1866), 범해각안(梵海覺岸, 1820~1896), 제산정원(霽山淨圓), 호은문성(虎隱文性), 금해관명(錦海瓘英, 1856~1926), 묵담성우(默潭聲祐, 1896~1981), 혜은법홍(慧隱法弘, 1915~) 율사에게 전해져 제 11대 수진스님에 이르고 있다.

세라돌 염주 세트

「 세라믹 구조로 되어있으며 전비의 빛으로 일레안 원적외선을 발생, 방사이어 영계 활성화 및 자정작용 등의 효능이 있으며 착용만으로 체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건강유지에 효과적이며 체 4의 공해라 일컬어지는 전자파를 차단하는데 뛰어난 효능의 제품입니다. 」

남성용
· 구 성 염주 + 단주 + 핸드폰줄
· 재 질 세라믹
· 규 격
· 염 주 405mm(구슬갯수 90개)
· 단 주 162mm(구슬갯수 36개)
· 핸드폰줄 76.5mm(구슬갯수 17개)
· 가 격 : 30,000원

여성용
· 구 성 염주 + 단주 + 핸드폰줄
· 재 질 세라믹
· 규 격
· 염 주 405mm(구슬갯수 90개)
· 단 주 162mm(구슬갯수 36개)
· 핸드폰줄 76.5mm(구슬갯수 17개)
· 가 격 : 40,000원

한방 속옷 세트

「한방팬티는 옛부터 전해내려오던 전통적인 염색법에 의한한방의류로서, 기존의 인체에 해로운 화공약품으로 염색한 의류와는 전혀 다른 숯, 황토, 쑥 등 인체에 유익한 100% 천연 한방약재로 염색 처리한 한방내의 입니다. 」

남성용
· 소 재 면 100%
· 구 성 숯, 황토, 쑥
· 사이즈 95, 100, 105
· 특 징 건강을 위하여 회음부분에 옥가루 부착
· 가 격 : 29,000원

여성용
· 소 재 면 100% (60수)
· 구 성 숯, 황토, 쑥
· 사이즈 85, 90, 95
· 가 격 : 29,000원

Mahamall 불교문화상품전문사이버몰 www.mahamall.co.kr 문의전화 : 02)732-1520